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홍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홍

진정한 심은 십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 새 삶의 마르다(롬 5:1). 통상적으로 '화평' 또는 '평화'는 영혼의 어떤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로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것,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실존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요 3:36). 그리스도의 화해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의 가운데서 그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함을 뜻한다(롬 1:7).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롬 3:24, 5:2).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표현은 현재 있는 새 삶이 완성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즐거워하며 또 영광이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그날을 향하여를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롬 5:3~4). 고난 중에다 기뻐하는 삶이다(롬 8:18). 현실에 얽매인 자들에게 고난은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계기가 된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가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셨다. 하나님 자신에 근거한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롬 5:5,8).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실천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현존하심을 알고 확인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고후 1:21~22).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든 나타내지 않으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본다(요일 3:16).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모른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깊이는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롬 5:8).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의 파멸과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요, 동일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표현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아멘.

8월

교회
일정

5일 (수)

14일 (금)

15일 (토)

19일 (수)

22일 (토)

23일 (주일)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청년1부 수련회(15일까지)

청년2부 · 사랑부

예배다부(성인반) 수련회

총력 교회주변 전도

(여전도회, 수요1부예배 후)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14:00)

2009년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찬양예배 시)

GOD CALLED MOSES

(10)“Therefore, come now, and I will send you to Pharaoh,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11)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that I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12)And He said,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 (Exodus 3:10~12)

After suffering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for more than four hundred years, God called Moses to deliver His people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Therefore, come now, and I will send you to Pharaoh,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Ex. 3:10). It was a big job, and Moses was God’s man of the hour. The Israelites were a hurting people, and Pharaoh was a powerful king with a strong army. It would take a very great leader to fulfill God’s plan. What kind of man was Moses that God called him for such an important task? Could God use me or you to do this job? The truth is that God’s call to Moses is not much different from His call to all Christians. God has a big plan to deliver His people from the depths of Hell to the heights of Heaven. All believers are called to deliver His message, the gospel, to those who are dying and without hope. Let’s look at Moses and see what kind of man God used to do His work?

In speaking, Moses was very weak, “Then Moses said to the LORD, ‘Please,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recently nor in tim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for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Ex. 4:10). Moses wasn’t a dynamic speaker. Not only did he have trouble speaking, but his past efforts at communication were a complete failure. Forty years before he became a shepherd in Midian, he was a royal member of Pharaoh’s household. In trying to institute justice between the Egyptians and Israelites, he ended up killing a man. He tried to explain things, but the Israelites didn’t listen nor respect him (Ex. 2:12~14), and Pharaoh wanted him killed (Ex. 2:15). He barely escaped with his life. Now, God was asking him to go back to this very same place where he had totally failed and try to get these very same people to listen to him. It didn’t make sense. Does God use people’s greatness or their weakness? 1Corinthians 1:26~29 say, “For consider your calling, brethren, that there were not many wise according to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and the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God has chosen, the things that are not, so that He may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My dear friend, God uses those who would commonly be considered foolish, weak, and of no consequence to convey His all important message.

In manner, Moses was very meek. He was honest and humble before God,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that I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Ex. 3:11). Moses’ heart was so soft and mild. He recognized his humanity. He confessed that he was not qualified for the job. He knew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him. He understood that his human strength was useless. He was a modest man, “Now the man Moses was very humble, more than any man who was on the face of the earth”(Num. 12:3). Jesus said of Himself,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Mt. 11:29). Jesus also preached,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Mt. 5:5). My dear friend, the world persecutes the meek, but God greatly rewards meekness in His children.

In ability, Moses was not the leader the world would seek. The world wants strong, proud, and self-motivated leaders. God likes weak, humble, and Holy Spirit-motivated servants. God told Moses,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Ex. 3:12). Moses had nothing of his own, but with God he had everything needed to be one of the greatest of leaders. God not only promised to be with him, but even gave him a reassuring sign of His presence. Peter and John were not professional scholars, but mere fishermen that God used. Acts 4:13 says, “Now as they observed the confidence of Peter and John and understood that they wer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they were amazed, and began to recognize them as having been with Jesus.” God used Mary Magdalene, who had seven demons, and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He even used Bartimaeus, the once blind beggar. My dear friend, Jesus can use you, no matter your condition. You can serve the Lord!

For just as God called Moses, He now calls you. Please listen to His call and obey His commands. He will give you the wisdom and strength you need to accomplish His plans. Humbly come to the Lord God with all your weaknesses, and He will make you into a great servant. Let’s be the kind of earthen vessel that is filled with the glorious gospel of Jesus Christ, “so that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power will be of God and not from ourselves”(2Cor. 4:7).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¹⁾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²⁾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³⁾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10~12)



김성환 목사

이שראל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을 당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대단한 사역이었고, 모세는 이 사역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바로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절대군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 저나 여러분을 사용하실까요? 이에 대한 답안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옥의 깊은에서 건져 천국의 높음으로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니이다

모세는 언변이 매우 어눌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출 4:10). 모세는 탁월한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그의 과거의 노력 역시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미디안의 목자가 되기 40년 전, 모세는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굽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모세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인들조차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를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출 2:12~14). 더군다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출 2:15). 그는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완전히 실패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탁월함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약함을 사용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6~29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패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하찮은 자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세상이 찾는 자가 아니니이다

모세는 아주 온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모세의 마음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 12:3).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 또한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도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당당하며 자기 주도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겸손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종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모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임业的 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13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나님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한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매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한 절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절기롭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아멘. ■

수요1부 에세이 / 마가복을 강해

수요1부 에세이 메시지(2009. 7. 22)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2:42~47)

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가장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다(행 1:14).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한 후, 그들은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다(행 2:42).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격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기쁘고, 감사를 찬양했다. 주인의 상황보다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에 대한 격정으로 가득하다. 조심하라며 많은 규칙들을 만들뿐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감사, 자기 부인은 없다. 우리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문제없다(요 15:7).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 성령님은 놀라게 역사하신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엡 3:20). 오직 기도하자(행 3:1).

하나가 된 교회 초대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행 2:44). 성령님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 성령충만한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 외쳤다. "여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행 1:4,8)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들은 성령충만하였고, 초대 교회는 시작되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다. 초대 교회는 교회의 명예와 권위를 중시하거나 교회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수많은 언론매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사 교회의 중직자들의 행적을 칭송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점점 찾기 힘들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 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순인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베루는 교회 초대 교회는 베루는 교회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5).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외받고 연약한 이웃들을 도왔다(눅 6:38). 외적인 모습보다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았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이 욕심은 결국 하늘문으로 가는 우리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말 3:8~9).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우리의 것은 없다. 가진 것이 있다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자(레 27:30).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셨다(행 2:3~4). 성령님이 초대 교회의 설립자인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중시하게 된다(말 14:14).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증거하는 교회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초대 교회는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행 2:47).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은혜가 넘쳤다(행 4:33). 교회의 사명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공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막 16:20; 행 1:8).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보를 꿈꾸며 목표가 바뀌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행 5:42, 8:4).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교회의 앞날을 염려한다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매순간 자기를 회개하며 기도하자.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여 영혼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땅으로 흩어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자. 이때 우리가 아닌,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아멘.

마가복을 강해 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14:66~72)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능력,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오직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데 온 관심을 기울였다(막 14:56~58,61).

예수님의 사행이 거의 확정될 즈음, 근처에 있던 베드로는 한 여중에 의해서 신분이 발각되었다(막 14:66~67). 그러나 베드로는 회피하였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막 14:68). 그러나 그 여중은 화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막 14:69). 이 외침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부인하였다. 계속해서 주변사람들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막 14:70).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였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막 14:71).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을 때 예수님의 결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나약한 여중의 말이 두려워 회피하였고 부인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결백을 주장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를 이룬다.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반면, 베드로는 정반대였다(막 14:36).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졌을 때 칼을 들어 저항

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에게는 진실된 기도(막 14:38)가 없었으며,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십자가를 싫어했다.

베드로가 회피와 부인, 저주의 맹세를 하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담이 또 다시 올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즉시 회개하였다(막 14:72).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다(막 14:28, 16:7; 눅 24:34; 고전 15:5). 예수님은 대속물(막 10:45)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종교적인 공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마 16:24).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마 5:34; 약 5:12)는 것이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것(마 16:22)처럼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말뿐, 정작 삶에서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있는 않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다. 자기를 부인하자.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자신'은 없다. 맹세를 비롯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없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 예수님만 믿자(히 12:2).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히 1:3).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자,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 매 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더욱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왜 이곳 선교지로 보내셨는지 사역 하루만에 겨우 알게 되었는데, 왜 그것을 진작 깨닫기를 못했는지... 전도지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 해도 듣지도 받지 않는 현지인들의 영적 사악함과 배척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전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팀 모두는 평가회를 끝내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의 전도사역에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달라진 모습에 서로가 마음 풀고 있었습니다. 나누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로 웃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스편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율동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 아들 프래의 짧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접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우리들의 마음은 감사로 변했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영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어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기도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린다.

전순희(집사, 3교구)

고난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자

선교가 끝나고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우뚝 서 계신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지에 갔다. 선교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남떠러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했고 매년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또한 40도를 넘는 무더위에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80%는 힌두교도들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마을에서 쫓겨야 하는 수난을 받기도 했다.

고난을 기뻐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슴 속은 뜨거워졌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때때 때문에 길이 막혀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곳곳이 이겨나갔다. 이 땅에 이방의 신들이 모두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질 날 간절히 소망하며 한사람 한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셨다.

현지 사정으로 길이 막혀 올 수 없는 상황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눈길로 인도하시어, 막힌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올 수 있게 해 주셨다.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넘어서 도착하여 지나는 길을 뒤돌아보았다. 길 저 끝자락에 주님의 모습이 우뚝 서 계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넓은 땅은 작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끼며 30대, 60대, 100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고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평기(집사, 5교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8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7일(월) ~ 8월 4일(화)	9교구 3팀	남종훈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5교구 1팀	유종석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4교구 2팀	신명환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7교구 3팀	이선홍
7월 28일(화) ~ 8월 4일(화)	청년1부 2팀	김종녀
7월 28일(화) ~ 8월 5일(수)	18교구 2팀	안연식
7월 28일(화) ~ 8월 5일(수)	22교구 2팀	양병진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6팀	홍금성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7팀	이신동
7월 29일(수) ~ 8월 6일(목)	13교구 2팀	이상배
7월 29일(수) ~ 8월 6일(목)	9교구 4팀	조영구
7월 30일(목) ~ 8월 7일(금)	10교구 2팀	송문식
7월 30일(목) ~ 8월 7일(금)	5교구 2팀	김영주
7월 31일(금) ~ 8월 7일(금)	6교구 3팀	김한철
7월 31일(금) ~ 8월 7일(금)	4교구 2팀	문영규
7월 31일(금) ~ 8월 8일(토)	16교구 3팀	김봉화
7월 31일(금) ~ 8월 8일(토)	대학부 8팀	박성철
7월 31일(금) ~ 8월 8일(토)	중등2부 3팀	윤병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6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0일(월) ~ 7월 28일(화)	10교구 1팀	장지환
7월 20일(월) ~ 7월 28일(화)	1교구 2팀	윤선환
7월 21일(화) ~ 7월 28일(화)	대학부 5팀	박복신
7월 21일(화) ~ 7월 29일(수)	2교구 2팀	전심산
7월 21일(화) ~ 7월 30일(화)	2교구 3팀	허민선
7월 23일(목) ~ 7월 31일(금)	20교구 2팀	강석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8일(토) ~ 7월 25일(토)	9교구 2팀	전성욱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도 많이 끼치고 기도에도 빛진 자가 되었으나, 선교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선교가 처음이라 불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첫 사역을 하러 가던 날, 앞의 차가 진흙탕에 빠지는 바람에 길이 막혀 우리는 예정된 곳 대신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만약에 진흙탕에 빠진 차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진흙에 빠져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역 마지막 날은 돌아오는 길에 맑은 하늘 무지개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잘했다는 칭찬하시는 것 같았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낯선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 있게 전하지 못했지만 함께 한 팀원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할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선교지로 짧은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듣고 따라하던 선한 반응을 이 생각났다.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인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길 바라며, 주님께서 그들이 영접 기도하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전도가 거듭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복음 전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종인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열흘 동안 함께 하며 사람으로 보듬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평가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경민(집사, 19교구)

소망부 여름수련회를 마치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다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망부는 수련회를 위해,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천국잔치가 되어 풍성한 열매 맺으며 또한 좋은 일기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행여 날씨가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시는 데 힘드실까 봐, 말씀의 사도함을 접고 소중한 잔치 속에 감춰진 비밀의 생명샘을 찾지 못하고 유혹의 길목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기도로써 마음을 모아 주님께 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공유했던 여가신 주님은 신앙의 잠을 자고 계셨던 어르신들을 많이 보내 주셨으며, 예수님과 만남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동안의 수련회였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기에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행복의 근원지가 가장 평범한 것에 있음을,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최정순(집사, 소망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소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아마도 나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행하여야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며,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김순희(은퇴권사, 소망부)

나비같이 춤을 추시며

소망부 어르신들은 혼자의 힘으로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자녀나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102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은 소망부에 들어오시면서 계단에서 찬송소리에 맞춰 나비같이 춤을 추며 좋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 충만한 말씀을 주셨고, 교사들의 섬김 또한 어르신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냈기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공정자(권사, 소망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치기훈련의 말씀을 들으며 후회되었던 것은 제게 친밀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운 책망을 할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듯이 회개와 더불어 주님께로 향한 힘찬 방향전환을 하게 하므로 제 안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오래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너무 내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덮치려는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올바르게 전보다 더 오래 기도하므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의 온전함 교제를 회복함으로 성령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이 은혜에 참여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주님을 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김태훈(대학부)

십자가의 은총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말씀하시는 복음의 깊은 설교에 대해 나 자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온전케 이끌어주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요구받고 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며 진정한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금요찬양집회가 참 좋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장대에 달린 낫뿔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감사한다(민 21:9).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승리의 표상이다. 아무리 범죄하고 실패하여 다 죽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 주심을 감사하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 자신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시간인가? 나를 충현교회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례(집사, 5교구)



정지기칼럼

바라봄과 두려움

올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학부로 보내셨다. 대학부 첫 집회 맨 그저 막막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부담과 두려움을 안은 채 지나갔다. 그 마음 그대로 한 주가 거의 끝나면서 금요찬양집회에 갔고 집회 후 대학부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었다. 기도회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로 다음날 대학부집회에는 첫날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나는 대학부의 분위기를 보면서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시간에 나는 부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찬양소리, 집회시간의 분위기 등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속 깊이에서 "넌 여기 이 시간에 어떤 자로 앉아 있나? 난 내가 여기서 예배자로 있길 원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때 나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참관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신 것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난 꼭 뭔가를 해야 하고 일조하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했지만 학생들에게 부감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에 나가야 하는... 하지만, 벌써 내 죄성은 부감으로서 예배를 바라보는 자리에 몰려가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배 때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를 드러기보다, 이어질 다음의 할 일을 생각하며 그저 설교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거나 만족 아주 깊은 곳에서 설교를 평가하며 교만한 맘으로 앉아 있다가 "아차!"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대학부집회를 통해 회개케 하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린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케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아니면 늘 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갔는 나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대학부 집회를 통해 나를 더욱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지신다. 주님은 내가 참관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매순간 삶에서 내가 드러지길 원하신다. 또한 마지막 때까지 나의 삶과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지길 소망한다.



이혜경
(집사, 대학부부장)

수화 칼럼 9 사도 신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보혈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의 은사를 받는다.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1. 죄를



2. 사하여



3. 주시는



4. 것과



5. 몸이



6. 다시



7.사는



8.것과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새가족양육부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나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려니 별 다른 차이가 없네요.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을 수료하는 동시에 나의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커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달구져 있었죠! 그런데 저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의지할 때가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고 믿음이 빨리 커지길 원했죠. 하지만 점점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록 저의 믿음은 점점 소원해진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확률이 바늘 끝에 낙하가 들어가는 확률이었나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확률이 적은 건지 남들이 가더군요. 교육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커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믿음을 걸구하면 서도 이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나 이같은 나를 그냥 두실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먼저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뭐라 말해야 하나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난 걸로 드러나는 체명은 없었지만 전과는 달리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잡고 있음이 떠오르네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수 없이 고민하고 아파왔는데 요즘은 늘 먼저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고는 깨는 바가 많아요. 먹을 때, 잘 때, 하물며 걸어 다니다가도 힘들거나 지칠 때 날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데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고, 의지도 하고요. 믿음이 얼마나 커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가족부 선생님 말씀처럼 풍나몰시루에 물을 부으면 죄다 빠지는 거 같지만 풍나몰이 자라듯 저의 믿음도 그러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라지 못했더라도 그 뿌리만큼은 단단해져, 언제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주님이 떠오른다는 건 좋은 거죠!

심창민(성도, 새가족양육부)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98	김동희	15	유년부	김신자(8)	1205	박왕임	5	장년4부	임태주(1)
1199	박남일	1	장년1부	윤지영(1)	1206	장성환	5	청년2부	임태주(1)
1200	임은수	2	청년1부		1207	강신미	23	청년1부	박병선(23)
1201	김연심	1	장년3부	윤병주(1)	1208	지현아	19	대학부	이훈의(1)
1202	윤희용	23	소망부	윤학술(23)	1209	한지원	14	청년2부	최영득(24)
1203	김형진	1	청년2부	박종철(2)	1210	최창호	14	소년부	최영득(24)
1204	장상기	5	소망부	임태주(1)					

※ 출전교회와 한 가족이 회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7월 7주째 충현 기도의 창

-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한 뜻(18)이 되게 하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골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시가시의 오층으로 풍성한게 하소서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⑨ 200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시 137:6)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llegible]

설 · 기 · 는 · 분 · 들

■ 위임이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이훈 장로교회	김종구 장로교회	차신득 장로교회	이종석 장로교회	정진호 장로교회	김민희 장로교회	장훈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유학천 장로교회	전종홍 장로교회	전종철 장로교회	한승권 장로교회	안진원 장로교회	유영호 장로교회	양재호 장로교회	황진섭 장로교회	유재호 장로교회	유재호 장로교회
김기영 장로교회	한윤철 장로교회	이형수 장로교회	안학원 장로교회	홍기진 장로교회	송철환 장로교회	박창원 장로교회	박창원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김기철 장로교회	이재민 장로교회	박학당 장로교회	이태식 장로교회	최학진 장로교회	박학원 장로교회	강원철 장로교회	강원철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이정호 장로교회
최교영 장로교회	전경호 장로교회	최영환 장로교회	이광정 장로교회	강소현 장로교회	김근영 장로교회	박준근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박기영 장로교회	조종환 장로교회	배준식 장로교회	이영환 장로교회	유소환 장로교회	김근영 장로교회	박준근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이종호 장로교회	노영환 장로교회	박국영 장로교회	정경철 장로교회	강창성 장로교회	김근영 장로교회	박준근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전영환 장로교회	최지환 장로교회	박국영 장로교회	정경철 장로교회	송재호 장로교회	김근영 장로교회	박준근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최진 장로교회

분	시간	장 소
제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제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제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제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제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1호
장 부	오후 12:15	갈림길 1층
장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제2부	오전 9:00(학합)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제1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제477호~제493호	선교관 1층
제2부	오후 12:10	배 다 홀
제1부	오전 11:00	제1교육관 507호
제2부	오전 8:30~오후 4:30	제2교육관 2층
제1부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제2부	주간교육	충원복지관

[illegible]